

北 “南, 돈봉투 내밀며 정상회담 제안”

“다른 혈액형 섞으면 다 죽는다”

천안함·연평도 사과 전제 지난달 비밀접촉 내용 이례적 공개... “양보해 달라 애걸했다”

북한은 지난달 남한이 베이징 비밀 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은 특히 남북 비밀접촉에 나선 남측 인사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고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불한당’ 등으로 표현하며 “다이아몬드 상 대 안하겠다”고 밝힌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남한이 베이징 비밀 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은 특히 남북 비밀접촉에 나선 남측 인사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고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불한당’ 등으로 표현하며 “다이아몬드 상 대 안하겠다”고 밝힌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남한이 베이징 비밀 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은 특히 남북 비밀접촉에 나선 남측 인사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고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불한당’ 등으로 표현하며 “다이아몬드 상 대 안하겠다”고 밝힌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남한이 베이징 비밀 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은 특히 남북 비밀접촉에 나선 남측 인사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고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불한당’ 등으로 표현하며 “다이아몬드 상 대 안하겠다”고 밝힌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과외들은 비밀접촉에서 오고간 이야기가 이남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꼭 비밀에 부쳐달라”고 했다. 이러한 자질이 이명박 역도의 ‘베를린 제안’의 당위성을 선전할 목적에 비해 베이징 비밀접촉 정형을 낱조해 먼저 여론에 공개했던 것”이라며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또 “이명박 역적패당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애당초 그 무슨 베를린 제안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고 비공개 접촉 사실을 왜곡해 신의없이 공개하는 언극도 놀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상회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변인은 문답에서 “남측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습뉴스

민주 위크숍서 호남 의원들 ‘야권통합 반대론’ 분출

당에서는 정치적 지지 기반인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론이 분출되면서 사실상 야권통합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호남 정치권에서는 야권통합이 현실화 될 경우, 지난 4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처럼 공천을 소수 야당에 양보하라는 압력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 위크숍에서 김동철 의원(광산 갑)은 “사람도 A, B, AB, O형의 피를 한 번에 다 섞으면 죽는다”며 야권 통합론

에 반대했고,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은 “가치와 이념이 달라 통합되는 것만부터 내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 연대가 효과적”이라며 가세했다.

우윤근 의원(공양시)은 “야권 선거 연대는 통합 행위”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통합하면 우리가 종북주의 등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이념, 정책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순천시)도 1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대통합은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진보신당 등 진보 세력과의 통합 실현에 최선을 다하면서 선거 연대 등에 나서는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 연말 예정된 순천·구례 지역의 사퇴 및 지도부 교체 등 정치 일정으로 비춰보더라도 이미 통합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대표 등 지도부 중심의 야권대통합 지지 세력은 늦어도 10월까지 통합 협상을 마치고 연말 정당대회를 야권 통합정당 창당대회로 치르자는 입장이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당론 도출도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새 진보정당 건설 연석회의 최종합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 김영훈 위원장,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총 김기갑 의원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6·2지방선거 1년... 일부 단체장 아직도 재판중

신안·구례·남원·순창 등 4곳 재보선 예상 물밑 선거운동도

6·2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법정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 및 각종 비리 연루 의혹 등으로 전남·전북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선거운동이 물밑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 있다.

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전북지역 단체장 중 4명의 시장·군수가 법정에서 단체장으로서 운명이 걸린 재판에 받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낙마하게 돼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에서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혜성 예산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 군수는 즉각 항소해 오

는 15일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승진 인사 및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는 오는 13일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황 군수는 논란이 된 군민장학회 자금 조성 관련 혐의의 수사 진행중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됐던 전남 완주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지난 4·27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홍익식 군수로 자리 바꿨다.

전북에서는 운송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단체장의 낙마가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곳마다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후보군의 물밑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남원에서는 시장 낙마에 대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고, 순창은 4~5명이 비공개적으로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에서는 5명의 광역의원 8명의 기초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공무원징계 방해혐의로 기소된 정중구 화순군의원(다 선거구)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오는 10월 26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전북에서는 운송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단체장의 낙마가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곳마다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후보군의 물밑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남원에서는 시장 낙마에 대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고, 순창은 4~5명이 비공개적으로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에서는 5명의 광역의원 8명의 기초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공무원징계 방해혐의로 기소된 정중구 화순군의원(다 선거구)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오는 10월 26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9월 새 진보정당 창당키로

민노·진보 통합정당 정책 최종 합의

지난 1월부터 당 통합 논의를 해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이 새 통합 정당의 정당·강령 등이 될 정책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동 김영훈 위원장 등 12개 당·시민사회단체 대표는 1일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말 전후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방식 등에 대해 각 단위원 의견 절차를 마친 뒤 9월까지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당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북한의 3대 세습문제와 관련해서는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2년 대선 완주”의제와 관련, 2012년 대선은 완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거 연대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당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북한의 3대 세습문제와 관련해서는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2년 대선 완주”의제와 관련, 2012년 대선은 완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거 연대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르셀로나 10월 광주 국제도시환경협약 참석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오는 10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시환경협약(Urban Environment Accords)에 참석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일 “유럽을 순방중인 강운태 광주시장의 지난 31일 오후(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장과 조르디 에레우 바르셀로나 시장과 조만간 취임 예정인 사비에르 트리아스 바르셀로나 시장 당선자와 양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Green City Better City’를 주제로 한 국제도시환경협약에 바르셀로나시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트리아스 시장 당선자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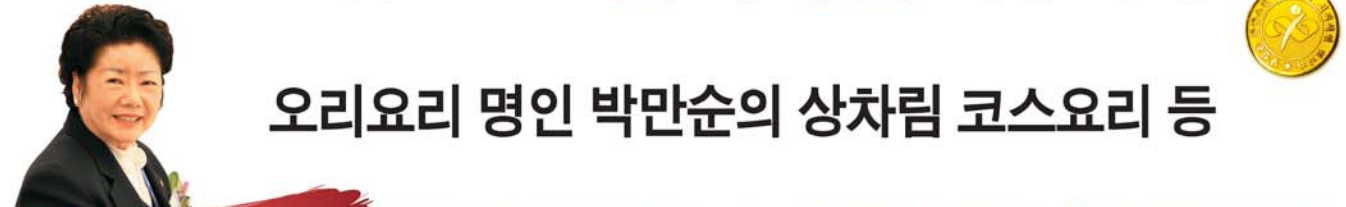
를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트리아스 당선자는 전임 바르셀로나 시장이었던 후안 크로스체가 광주 UEA 기초발제자로 참석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와 바르셀로나시는 또 이날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양도시 간 광등과 상하도의 증진을 위해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무역,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바르셀로나시는 광주시가 추진중인 ‘어번 플러’를 벤치마킹해 ‘Dhub’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Dhub 박물관에서 광주비엔날레와 공동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월드덕 추천요리

-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 효소 월드덕 점
- 한방오리구이
- 약오리 백숙
- 향암육수 샤브샤브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숯소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점심특선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5,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요리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유전일식

참치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점심 특선 17,000원

유전 특정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

